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공개

강기정, 예금 늘어 10억9천만원

황경아 남구의원 136억 1위

광주시장과 부시장들이 모두 1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올해 재산 공개 대상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5개구 기초의원 69명과 그린카진흥원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4명 등이다.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5개 구청장 등 34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1,486만원으로 동일인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인당 4,716만원 (1.6%) 증가했다. 53명 (72%)은 증가했고, 20명 (28%)은 감소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자 34명의 재산 평균은 10억

5,98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1만원 늘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6억 2,400여만원)보다 4억6,000여만원 늘어난 10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2억원가량 늘어난 7억 8,800여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거비용 보전으로 2억5,000만원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 다음으로 재산이 적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9억 8,600여만원)보다 조금 늘어난 10억 여원,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5억1,000여만원)보다 줄어든 14억 2,200여만원을 신고했다.

5개 구청장 가운데 문인 북구청장이 20억2,000여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박병규 광산구청장 11억 7,400여만원, 김병내 남구청장 7억 2,900여만원, 김이강 서구청장 3억

6,500여만원, 임택 동구청장 3억 2,400여만원이었다.

시의원 23명의 평균재산은 9억 4,821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심창욱 의원은 65억8,800여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구의원 가운데는 황경아 남구 의원이 지난해보다 21억3,700여만원 늘어난 136억2,500여만원으로 최고 재력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부동산과 예금 등 총 14억3,255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재산 13억8,838여만원보다 4,417여만원 증가했다.

이밖에 김덕목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이 광주시 유관 기관장 중 가장 많은 107억4,200여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31억8,700여만원, 김태봉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22억8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토지상속 26억1천만원

이동현 도의원 133억 최고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고 재력가는 133억원을 신고한 이동현 전남도위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보를 통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행정·정부부지사, 기초자치단체장 22명, 전남도의원 61명 등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9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전남 고위 공직자 92명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3억7,538만원 감소한 13억7,121만원을 기록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18억 여원보다 8억1,000만원이 증가한 26억 1,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한데다 장인의 사망에 따른 토지 상속 등 영향으로 재산이 늘었다. 김 지사는 장인의 별세로 경기

도 고양시에 위치한 답 3,981㎡를 부인이 상속받으면서 6억710만원이 증가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억6,783만원보다 1,200여만원 늘어난 12억9,0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부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등 가족이 갖고 있는 총 예금과 주식은 줄었지만 장남의 오피스텔 전세권 확보 등 이유로 재산이 늘었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지난해 6억6,992만원보다 3억7,112만원 늘어난 10억4,100만원을 신고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명현관 해남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가로 지난해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한 81억 8,60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이상익 함평군수가 68억7,72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동현

전남도의원 (보성2)으로 133억4,685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전국 광역시·도의원 중에선 5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 9월 마이너스 6,801만원에서 4억 9,797만원이 더 늘어 마이너스 5억 6,598만원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곡성군 삼기면 지역 토지 (1,015㎡)와 주택 (대지 470㎡·건물 97.56㎡)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각각 1,340만원, 1,900만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49명 중에서는 50억6,200만원을 신고한 박용찬 신안군의회원이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2명, 기초의원 의원 247명으로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7억5,000여만원이다. /임채민 기자

전남도-카카오메이커스, 수산물 판매 협업

내달 5일까지 제철 기획전

시중보다 10~30% 낮은 가격

전남도는 30일 “오는 4월 1일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카카오의 임팩트커머스인 ‘카카오메이커스’와 손잡고 제철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5일까지 운영하는 제철 수산물 판

매 기획전은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 매진하는 수산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했다.

수산물 구매는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공동주문 이후 재고·유통비용 최소화로 소비자에게 시중 수산물보다 10~3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완도 활전복, 장흥 매생이, 신안 흑산 홍어 등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선보인다.

또 2,6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카카오 소통 채널인 ‘온터무브’를 통해 매주 2회 수산물 기획전을 알려 다양한 소비자에게 전남산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과장은 “전남도와 카카오가 협업해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돕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어업인은 정성껏 생산한 수산물의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농협 조합장 한마음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무안군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3 전남농협 조합장 한마음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호남고속철 2단계 신속추진 ‘총력’

관계기관 지원협의회 개최

토지보상 등 협력방안 모색

전남도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신속 추진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구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지원협의회를 열고, 토지보상 등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관계기관 지원협의회는 전남도,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 경유지인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과 사업 현장 7개 공구의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구

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용지 보상과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소음·진동 발생 등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도로·국공유지 점용허가,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km 구간이다. 지난 2019년 6월 광주 송정부터 나주 고막원 26.4km의 기존선 고속철도 경유지인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과 사업 현장 7개 공구의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구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수도권 이남지역은 물론 전남 동부권, 영남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안 국제공항에 신설될 ‘공항역’도 공항과 동선을 일체화시켜 이용객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원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이 사업 기간에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하겠다”며 “이용객의 교통편의 개선과 서남권 저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신세계 확장안 ‘조건부 동의’

도시계획위 8가지 조건 제시

점포등록까지 1년6개월 전망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3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심의, 조건부 동의했다.

광주시가 광주신세계측에 제시한 조건은 8가지다.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추

가 확보, 남서측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정, 지하차도 설치 뒤 기부채납, 소로 2-33호선은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꿔 주변 민원 해소를 지시했다.

기존 보행 육교는 철거하되 응급·화재 등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확장, 전계 공간 등 확보를 검토하고 금호월드 포함 주변 상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고도 제안했다.

광주신세계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다음 절차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광주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공동위원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건축 인허가 단계 속 교통영향평가·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

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대규모 점포 등록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해 프리미엄 백화점인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백화점 확장을 위해 필요한 도로선형변경과 교통대책인 지하차도 건설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광주신세계 확장계획을 검토한 끝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재지문 결론을 내렸다. /길용현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아미스능력개발원

383-3344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아미스(주)

(주)한솔티엠에스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주)아미스개발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호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북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